

## 세계보건기구(WHO)

# 미래 호흡기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교훈 보고서 발간

- 우리나라를 9개 교훈 중 4개 교훈에서 모범사례로 평가

\* 이 보도참고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입니다.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세계보건기구(WHO) 보고서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s://www.who.int/publications/i/item/9789240086531>)

세계보건기구(WHO\*)는 3월 7일(목) 「미래 호흡기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교훈\*\*」 보고서를 발간했다.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 중 얻은 교훈을 전세계적으로 공유하여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되었다.

\* 세계보건기구(WHO): World Health Organization

\*\* Learning from Covid-19 for future respiratory pathogen pandemic preparedness

먼저, 세계보건기구(WHO)는 ①방역역량 및 인프라에 대한 사전 대비·투자, ②순사회적·국제적인 협력, ③취약 계층의 우선적인 보호, ④신속한 대응과 변화하는 유행 상황에 맞는 대응을 4가지 핵심 메시지로 발표하였다.

핵심 메시지	
1	▪ 사전 투자 및 대비는 효과가 있습니다.
2	▪ 건강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.
3	▪ 모두가 안전해져야 누구도 위험하지 않습니다. (취약계층 우선보호)
4	▪ 팬데믹 대응은 민첩하고 유연해야 합니다.

보고서에서는 △협력적 감시, △위기 총괄·조정, △의료대응, △의료 물품 접근성, △공동체 보호, △협업과 책임 총 6개 분야에서 9개 교훈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, 우리나라를 협력적 감시, 의료 대응, 공동체 보호 분야에서 4가지 교훈의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.

세계보건기구(WHO)는 코로나19 대응 중 얻은 교훈을 분야별로 설명하며 국가별 시사점 및 모범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.

분야		시사점 및 모범사례
1	협력적 감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한국) ① 메르스 대응기반 활용한 신속한 정부민간 검사체계 통합</li> <li>▪ (싱가포르) 민간, 대학연구소의 대량 검사 충족</li> <li>▪ (우간다) 전국 실험실 활용 검사기간 단축(7→1일)</li> </ul>
2	위기 총괄·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미국) 국가 대응체계 지연으로 일관되지 않은 지역대응 사태 초래</li> <li>▪ (아프리카 WHO) 정치적 리더십 개입 필요성 확인</li> </ul>
3	의료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중국) 모듈형 병원 설치로 12일 이내 2,500개 이상 병상 공급</li> <li>▪ (독일) 코로나19 초기 대규모 병상 공급(28,000 → 40,000개)</li> <li>▪ (한국) ② 중증환자 병상 확보, 재택치료 활용, 외국인 무료 치료</li> </ul>
4	의료물품 접근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아프리카 연합) 아프리카내 의료물품 제조에 대한 투자 추진</li> <li>▪ (범美보건기구(PAHO)) 의료물품 유통지연 해결을 위한 투자 추진</li> </ul>
5	공동체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독일) 저소득층 보육혜택 확대, 자영업자 보조금 지급</li> <li>▪ (스웨덴) 일시적인 세금 납부 면제</li> <li>▪ (한국) ③ 모든 국민 대상 보편적 건강보험 제공</li> <li>④ 코로나19 시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</li> </ul>
6	협업과 책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이란) 2019년부터 국가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 수립 진행</li> </ul>

또한, 코로나19 대응 교훈 9개를 적시하였다. 첫째, 새로운 호흡기감염병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감시와 실험실 역량 강화를 언급하며 이는 공중 보건 정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중요 과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둘째, 위기 총괄 및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투자를 권고하며, 사전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은 팬데믹 확산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. 특히, 원헬스 분야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대비를 지목하였다.

\* 사람·동물·환경의 건강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, 최적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방식

셋째, 감염병 확진자 발생 최대치에서도 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병상 확보 등의 의료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며, 이는 감염병 유행 시기 긴급 치료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의료 인력과 지역 사회 보호를 가능케 하는 주요 요소라고 설명하였다.

넷째, 정부와 비정부기관,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권고하며 이로 인해 의료 전달 체계는 향상되고 의료 서비스와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.

다섯째, 백신과 치료제 등 의료 물품에 대한 생산 능력을 향상을 위해 정부는 의료 물품에 대한 긴급 사용승인 등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제조 기업과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.

여섯째, 정부의 공중보건 및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탄력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, 일곱째,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, 교육중단, 복지 서비스 장벽 등 사회·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.

여덟째, 팬데믹 위협에 대한 강력하고 공평한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 및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각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는 코로나19 등 과거 감염병 유행 중 대응사례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할 것을 권고하였다.

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“세계보건기구(WHO)가 모범사례로 우리나라를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방역 역량을 더욱 향상시켜 미래 팬데믹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”고 언급하는 한편, “작년 국내에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(GHSCO\*)와 올해 지정 예정인 팬데믹 대비 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(WHO CC\*\*)를 통해 보건안보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\*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(GHSCO) : Global Health Security Coordination Office

\*\*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(WHO CC) : World Health Organization Collaborating Center

담당 기관	질병관리청	책임자	과 장	김유미 (043-719-9050)
	위기대응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박장호 (043-719-9051)